

시민과 함께한 100일, 더 큰 책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안신일입니다.

지난 7월 1일 시민의 기대와 뜻을 안고 출발한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오늘로 100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100일은 시민의 뜻을 의정에 충실히 담아내고, 세종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제5대 의회는 시민 곁에서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을 모은 것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입니다. 21명의 의원 모두 여야를 넘어 한마음으로 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첫 입법 과제로 발의하고,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 차원의 대응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회와 전국 시·도의회를 찾아 협력을 요청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전국 지방의회의 힘을 모았습니다. 8월 세종에서 열린 정기회에 이어 9월 임시회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앞 범국민 결의대회와 릴레이 피켓에도 함께하며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 세종 집무실 시대와 '경제·행정 2수도' 구상을 밝히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 방침도 발표됐습니다. 이제 이 흐름을 제도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합니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남은 과제가 결실을 맺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중심으로 국회를 찾아 제정의 필요성을 전달했고, 지난 9월 28일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주관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방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서고, 그 힘은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믿음으로 제도 개선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현장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가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로컬푸드 생산자, 학교운영위원

장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크린넷 집하장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도 직접 찾아 살폈습니다. 제5기 의정모니터단도 새롭게 출범시켜 시민이 의정활동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를 넓혔습니다.

의회 내부의 변화에도 힘썼습니다. 지난 7월 의원 21명 전원과 의회사무처가 함께 뜻을 모아 「의원-공무원 상호존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식 절차에 따른 자료 요구와 존칭 사용,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요구 금지 등 서로 존중하며 일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고,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청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제5대 의회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정책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100일은 긴 여정의 첫걸음입니다. 그동안의 성과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시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의회,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이라는 시민 여러분의 오랜 염원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21명의 의원 모두 한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더 부지런히 현장을 뛰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안신일